

사이코 호수 - 처녀의 호수

사이코 호수는 '처녀의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수는 투명하고 잔잔하지만 꽤 깊어서 가장 깊은 장소는 수심 70m에 달합니다. 사이코 호수는 과거 이 일대에 펼쳐져 있던 호수 세노우미가 864년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의 용암류로 완전히 덮혔을 때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사이코라는 명칭은 세노우미의 '세'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864년의 분화로 인해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의 용암 대지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사이코 호수의 북서안 일대에서는 차갑고 잔잔한 호수 너머로 짙은 녹색의 '나무의 바다(주카이, 樹海)'가 펼쳐지고 그 너머로 후지산이 우뚝 솟아 있는 웅장한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 호수 북쪽에 있는 주니가타케 산과 셋토가타케 산의 하이킹 코스는 해발고도가 높고 전망이 좋아서 후지산의 전경을 멀리 바라다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산으로는 사이코 호반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쿠니마스의 발견

최근 사이코 호수는 연어과의 민물고기 쿠니마스를 보호하자는 노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35년 당시 유일하게 알려져 있던 쿠니마스의 서식지인 도호쿠 지방 아키타현의 다자와코 호수에서 수천 개의 쿠니마스 알이 사이코 호수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쿠니마스의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그 후 곧 잊혀졌습니다. 한편, 다자와코 호수의 쿠니마스는 수력 발전소 시설과 관련된 수소 이온 농도의 변동으로 1948년까지 전부 멸종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2010년, 사이코 호수에서 쿠니마스가 발견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이코 호수는 수온이 낮고 깊은 곳에서의 번식을 선호하는 쿠니마스의 이상적인 서식지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쿠니마스는 이 호수에서 낚을 수 있는 히메마스(평생 민물에서 살게 된 홍연어)보다 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잡힌 쿠니마스가 호수로 다시 되돌려 보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어떤 낚시꾼도 이 물고기가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쿠니마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